



아프리카의 비극



김대규 | 본회 이사, 대한결핵협회 고문(현)
'보건세계' 발행인 겸 주간,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동창회장,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역임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며 인구는 7억이 넘는다. 피라미드와 스팅크스로 상징되는 세계 최초의 문명에 속하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오천여 년 전에 나일강 기슭을 따라 화려하게 꽃피었으며 그 후에도 문화적으로 앞선 여러 왕국과 제국이 번성했다.

유유히 흐르는 나일강, 끝없이 펼쳐진 사하라 사막, 울창한 밀림과 광대한 초원을 기린 이 달리고 사자가 포효하는 동불의 왕국, 헤밍웨이의 소설에 나오는 최고봉 킬리만자로가 있고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대륙, 그리고 금과 석유, 코발트,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광물자원과 산림 자원이 풍부한 대륙.

그러나 15세기말부터 유럽인의 탐험이 시작되고 교역소가 설치되면서 아프리카의 비극적 역사는 시작된다. 아프리카는 16세기초에 시작된 노예무역에 의하여 19세기초까지 2,000만 명의 인구를 잃었다. 한 때 TV에 연속 방영된 「뿌리」는 주인공 킨

타쿠티를 통하여 야만적 인간 사냥과 잔혹한 매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19세기말에는 풍부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유럽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거의 대부분 식민지로 만들고 수탈해 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의 식민지가 독립을 했으나 군사 쿠데타와 독재로 인한 정치적 불안, 종족간의 갈등과 국가간의 영토분쟁이 아프리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과잉, 빈곤, 질병, 그리고 기근이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실상가상으로 20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는 인류공동의 위기로 인식될 만큼 심각하다.

WHO에 의하면 지난해 말 전 세계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3,600만 명이며 이중 70%인 2,530만 명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성인의 에

이즈 감염율이 1%미만인데 비해 10개국에서 10%가 넘으며 남아공은 20%, 짐바브웨는 25%가 넘는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는 말라리아를 누르고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였고 2000년 한해동안만 380만 명이 새로이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240만 명이 사망하였다. 전 세계의 1,300만 명의 에이즈 고아 중 1,000만 명의 고아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 4,000만 명의 에이즈 고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프리카 평균수명은 2005~2010년에 평균 59세에서 40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짐바브웨는 61세에서 33세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까지 아프리카 가입기 여성의 사망으로 인해 7,100만 명의 태어날 인구가 태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의 전파원인은 가난, 전쟁, 무지, 고가의 에이즈 약, 난잡한 성생활 등이다.

매춘여성의 감염율은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동 노동자, 트럭 운전사, 군인들은 계속 이들과 성관계를 갖고 있다. 처녀와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가 낮다는 미신이 있어서 어린이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에이즈 발생 이후 아프리카의 일인당 소득이 약 20%정도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에이즈 확산은 2006년 월드컵 개최지를 결정할 지난 해 7월의 FIFA 집행위원회의 투표에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했다. 베켄바워 독일 유치위원장 조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세를 점쳤으나 최종 투표결과는 12:11, 독일의 한 표 차 승리였다.

독일은 74년에 월드컵을 개최한 바 있고 당시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의 첫 월드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분위기를 잡았고 이미 9개 경기장을 완성하는 등 준비도 완벽했으나 이와 같이 이번이 연출된 것은 남아공이 「에이즈 요주의 국가」라는 사실이 투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거의 따 놓은 월드컵 개최의 꿈은 이렇듯 에이즈로 인해

무참히 깨어졌다.

에이즈로 하루 700여명이 죽어 가는 케냐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당분간 성생활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니엘 아랍모이 대통령은 또한 콘돔에 대한 케냐인의 거부감이 크지만 앞으로 4년간 3억 개의 콘돔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케냐 정부는 1999년 에이즈 확산을 국가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대책을 강구중이나 일반 국민의 호응도가 낮으며 콘돔사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대통령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성생활 중단과 콘돔 수입계획을 직접 발표한 것은 이제 에이즈 분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말해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세기에 걸친 예속과 수탈의 슬픈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대다수의 식민지가 독립신생국으로 탄생했지만 아프리카가 지닌 태생적 한계 때문에 아직 혼란과 갈등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엄청난 에이즈 재앙이 겹쳐 아프리카 대륙은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 저편 검은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상황에 무관심할 수 없다.

UN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 위기로부터 지구촌을 구하기 위해 창립 이래 전대미문의 「UN 에이즈특별총회」를 2001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UN본부에서 개최했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지금까지 에이즈에 대한 전세계의 대응은 미흡했다면서 도덕적 판단은 일단 제치놓고 에이즈퇴치를 위한 70억 내지 100억 달러의 기금 마련에 전세계가 당장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아프리카가 고향인 아난 사무총장과 화월 미 국무장관이 모금 운동에 앞장서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반응은 아직 소극적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액의 기금 출연을 밝혔다고 하니 나행이다.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비극을 줄이고 우리를 에이즈로부터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평균수명은 2005 ~ 2010년에 평균 59세에서 40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짐바브웨는 61세에서 33세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까지 아프리카 가임기 여성의 사망으로 인해 7,100만 명의 태어날 인구가 태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